

## 김수지 한국호스피스협회 이사장 (서울사이버대학 총장)

올 한 해 2008년에도 환우와 함께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동행하며 돌보시는 호스피스봉사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 기쁨,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호스피스 케어의 목적은 단지 평안한 임종을 맞도록 돕는데 그치지 않고 환우의 궁극적 삶 자체를 승화시켜 완성하도록 돌보는 것입니다. 육체적 통증뿐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통한 총체적인 고통의 완화가 함께 이루어지며 인간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도록 최선을 다해 돌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스피스에서는 삶의 길이나 양(量)이 아닌, 삶의 질(質)과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으로 하는 안락과 복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결국 잔여 삶을 후회하는 일이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 갈 수 있도록 보살피는 생명사랑입니다.

임종은 곧 죽음을 준비는 과정으로, 이는 삶의 준비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유연성을 인지하고 어떻게 의미있는 삶을 살까를 준비하며 보람있게 사는 것이겠습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 같아 결국 아름답게 삶을 산 사람은 죽음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역으로 아름다운 죽음을 맞으려면 지금 현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야 하겠지요.

“지금 이 순간이 이 삶의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사랑하며 용서하며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Byock은 그의 저서 The 4 things that matter most 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말들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퀴블러로스는 그의 마지막 저서 Life Lessons 인생수업 책에서 생의 마지막 시점에서도 배울 수 있는 4가지 L, 즉 사랑하고(Love) 웃으며(Laugh) 배우며(Learn) 살라(Live)를 지금부터 실행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아름다운 죽음을 호상(好喪)이라 하여 죽음을 맞은 자를 환송하며 남은 자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호상, 즉 아름다운 죽음이라 함은 춤지도 덤지도 않는 적당한 시기에, 모든 것이 미리 잘 준비된 상황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의미있는 작별의 시간을 갖고 고통없이 평안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죽어감을 일컫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한 과정입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삶이 제한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그 날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다면 아름답고 좋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은 살아온 방식대로 죽어감으로 평소에 죽음을 생각하며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수시로 점검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잘 살아온 사람은 잘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